

라이프스타일 저널리스트 장은정의 피플 앤 라이프
젊은 예술가들 뒤에, 그가 있다

향긋한 커피와 함께 우아한 클래식 음악을
듣고, 멋진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멋진 남자가 있다. CF
속에서 나올 법한 라이프스타일의 소유자는
바로 '유중아트센터' 대표이자 '유중재단'의
수장인 정승우 이사장이다.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후원하는 그의
라이프를 취재했다.





지난 2월, 유중재단에서 후원하는 복합 문화 공간인 유중아트센터가 있는 방배동으로 향했다. 건물 1층에 위치한 '카페 드 유중'에 들어서면 상쾌한 나무 향이 코를 자극하는데, 마치 삼림욕을 하는 기분이 든다. 알고 보면 카페 드 유중은 기네스 인증을 획득한 최초의 삼림욕 카페. 내부 벽면을 전시장으로 활용해 매달 작가의 전시와 프로모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월 프로젝트(Wall Project)'도 진행 중이다.

커피 한 잔과 함께 전시를 구경하다 보니 깔끔한 네이비 슈트 차림의 정승우 이사장이 모습을 드러낸다. 카페 한쪽에는 피아노가 놓여 있다. 전시뿐 아니라 공연도 열리는 걸까?

"매달 넷째 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에는 '콘서트 눈(Concert Nu:n)'을, 저녁 8시경에는 '콘서트 문(Mu:n)'을 진행합니다. 실력 있고 참신한 연주자들의 연주를 들려주는데, 주변 직장인과 인근 주민들이 보다 쉽게 공연을 접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획했습니다." 정승우 이사장이 설명한다.

2층에 들어서면 클래식 음악 공연장인 170석 규모의 '아트 홀'과 1개의 체임버 연습실, 7개의 개인 연습실을 갖춘 '뮤직 스튜디오'가 자리 잡고 있다. 3층에는 2개의 전시장과 신진작가를 위한 7곳의 창작 공간을 갖춘 '유중 갤러리& 창작 스튜디오'가 있는데 현재 7명의 입주 작가가 상주해 있다. 4층에는 '1갤러리'와 정승우 이사장의 집무실이 보인다.

2011년 하반기에 오픈한 유중아트센터는 올해로 4년째를 맞는다.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물었다.

"신진작가들을 육성하고 후원하는 데 큰 보람을 느낍니다. 공익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그들에게 전시 기회를 되도록 많이 제공해주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작년 2월에는 유중아트센터의 별관인 '이수 AT 센터'를 개관했는데 카페 드 유중 이수점과 '0갤러리', 그리고 애프터는 티 전문점 '카페 유'가 함께 자리해 있습니다. 3월에는 카페 드 유중 과천점도 오픈했고요. 방배 본점과 마찬가지로 '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진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합니다."



1 3층 유중 갤러리에서 전시 중인 입주 작가 구나영의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한 정승우 이사장. 2 입주 작가 3기 조태광 작가의 창작 스튜디오. 3 1갤러리에서 전시 중인 이시내 작가의 전시회를 배경으로 입주 작가 3기와 함께. 왼쪽부터 석민영, 유주현, 정승우 이사장. 4 입주작가 3기 안경윤 작가의 창작 스튜디오.



1 입주 작가들과 정승우 이사장.

유중아트센터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젊은 작가들을 후원하고 있다.

2 금년 6월에 재오픈할 '호텔 유중 단양'의 설계에도 직접 관여하고 있는 정승우 이사장이 틈틈이 애독하는 호텔 관련 인테리어 북.

3 정승우 이사장의 사무실에서 눈에 띄는 소품들. 각각 스토리가 담겨 있는 그의 애장품이다.

4 정승우 이사장의 소장품인 유명 팝아트 작가 줄리언 오피의 작품. 5 유중재단에서 후원하는 클래식 음악가들과 함께. 6 지난 2월 15일 유중아트센터에서 후원한 현대악품의 아트엠 콘서트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수빈의 공연.



유중아트센터는 올해부터 2명의 클래식 음악가도 후원하고 있다. 독일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다 작년에 귀국한 피아니스트 정재원과 요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젊은 작곡가 전민재가 현재 2층 뮤직 스튜디오에 상주해 있다. 그는 다양한 레지던스 후원 작업을 추진하는데, 그가 입주 작가를 선발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은 무엇일까?

“딱 세 가지입니다. 재능과 가능성, 그리고 지속성이죠. 지속성이라는 건 본인에게 확실한 꿈이 있느냐는 거죠. 그냥 취미로 하는 예술은 안 됩니다.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자신의 꿈을 향해 정진하는 사람이어야 하죠.”

보통 작가를 인터뷰할 때는 서울과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미술 전문가인 유중재단 이사들의 도움을 받는다. 아트센터 건너편에는 작년 11월에 개관한 서초문화센터가 보이는데 서초구에서 이 지역을 현재 문화예술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추진 중이라고 한다. 정승우 이사장은 유중아트센터가 주축이 되어서 문화 예술을 보급하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며, 지역 주민이 편하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장을 많이 마련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실 그는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스페이스에도 관심이 많다. 레노베이션을 통해 금년 6월에 재오픈 예정인 '호텔 유중 단양' 같은 경우 충청북도 단양에 위치해 있는데, 바로 코앞에 호수를 품고 있다. 호텔이 유중아트센터의 연장선이라고 표현하는 그는 통영국제음악제나 대관령국제음악제처럼 유명한 국제 음악 페스티벌과 멋진 미술제를 추진하고 싶다고 말한다. 단양 8경을 관광하면서 예술과 문화도 함께 즐기면 그야말로 멋진 경험이 되지 않을까.

4층에 위치한 정승우 이사장의 집무실에는 독특한 소품이 눈에 많이 띈다. 그중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것은 초콜릿으로 만든 하이힐. 친한 지인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는데 이태리 밀라노의 유명 초콜릿 브랜드 '카카오 랩(Cacao Lab)' 제품이다. 그 모양이 재미있어 1층 카페에 진열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바로 옆에는 정승우 이사장과 똑같은 형상의 미니 피규어가 보인다.

"절친인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인 한성자동차의 율프 아우스프롱 사장님이 엄청 추운 겨울날 직접 들고 온 선물입니다. 우정의 표시인 셈이죠. 사실 한성자동차에서 '드림 그림'이라는 미술 영재 지원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환경 때문에 소질 있는 학생들이 미술에 대한 재능과 꿈을 버리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프로젝트 의도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12월 그들의 졸업 작품 발표회가 유중아트센터에서 개최됩니다."

마지막으로 귀여운 펭귄 모양의 조각품은 유중 신진작가 공모전 수상자인 박지혜 작가가 감사의 인사로 선물한 작품으로 골판지로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예술 작품과 재능 넘치는 아티스트들이 항상 함께하지만 정승우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유독 애착을 느끼는 예술가는 누구인지 궁금해졌다.

"위대한 음악가인 시벨리우스의 교향곡과 바이올린 협주곡도 즐겨 듣고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도 좋아합니다. 아르페지오네는 특히 사람과 비슷한 낮은 음역대로 릴렉스한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 첼로 버전의 연주를 좋아합니다." 아트 컬렉터이기도 한 그는 주로 신진작가의 작품을 소장하는 편이다. 유명한 작품 중엔 영국의 경쾌한 팝아트 작가인 줄리언 오피의 작품이 눈에 띈다. 소년의 모습을 담은 작품인데 자세히 보면 정승우 이사장과도 닮은 것 같다.

"사람들이 자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는데(웃음). 사실 아트 비즈니스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세심하게 신경 쓸 일도 많고 굵은일도 많이 해야 하거든요.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 자연스레 경쾌한 작품에 눈이 가는데 특히 줄리언 오피의 작품은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 입주 작가들도 이 그림을 보면서 영감을 많이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희정 작가의 작품도 좋아한다. 건축과 디자인에도 관심이 많아 원근법과 착시 현상을 유도하는 평면적인 조각이나 입체적인 드로잉으로 뉴욕의 거리를 정교하게 재현하는 그녀의 작품이 유독 마음에 들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진행할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부탁했다.

"3월에는 통영국제음악제와 62년 역사의 국제 실내악 축제인 '카잘스 페스티벌 인 코리아'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4월에는 부산 아트쇼에도 참여할 예정이고요. 특히 2014년 하반기에는 유중아트센터가 보다 전문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1층 미술관 전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인 '유중 라이징 스타 콘서트' 시리즈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정승우 이사장의 라이프스타일을 취재한 지 사흘째, 마지막 날 유중아트센터에서 후원한 현대약품의 아트엠 콘서트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수빈의 공연을 감상하기 위해 들렀다. 중학생이 연주한다고는 믿기 힘든 그녀의 재능과 연주 실력에 옴에서 전율이 느껴졌다. 정승우 이사장이 극찬한 이유를 알 만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전해지는 우리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진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순간이다. **III Text** 장은정(라이프스타일 저널리스트)

Photographer 공정식 Hair&Make-up 정유미(에스 휴 02-3448-3007)



장은정 | 라이프스타일 저널리스트

인터뷰를 진행한 장은정은 패션 업계에서 오래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CEO와 VIP 고객 및 유명 인사들의 이미지 컨설팅과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각종 하이엔드 멤버 대상 세미나에서 강의를 맡고 있으며, 라이프스타일 저널리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현재 (주)미래IMC커뮤니케이션 사업부 이사.